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361-388
<https://doi.org/10.29212/mh.2017..105.3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초기의 영토의식과 국경 분쟁

신안식*

1. 머리말
2. 영토의식과 성곽 축조
3. 국경 분쟁과 '강동 6주'
 - 가. 1차 여요전쟁과 국경 분쟁
 - 나. '강동 6주'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전기에는 국도 개경 이북의 양계(兩界) 지역에 대한 성곽 축조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다.¹⁾ 성곽 축조의 목적은 양계 지역의 군사적 운용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 1) 고려전기 북방지역의 성곽 축조에 주목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 4, 1953 ;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 5, 1953 ; 李基白, 「高麗太祖 時의 鎭에 대하여」, 『歷史學報』 10, 1958 (『高麗兵制史研究』—潮閣, 1968, 재수록) ; 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東洋學』 7, 1977 ;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 1983 ; 김명철,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 李在範,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뿐만 아니라 고려의 국경(國境)²⁾ 즉, 왕조적 영토의식을 구현해 나가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국경은 국가 대 국가의 영토 주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경계선이다. 고려의 국경 관념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관방(關防) 설치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1033년(덕종 2)에 축조된 ‘고려장성(高麗長城)’이었다.³⁾ 이는 고려초기부터⁴⁾ 형성된 영토의식의 실천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숙종대 이후 동북 지역의 영토를 확대하는 데에도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려의 국경 획정은 개국이후 압록강(鴨綠江)을 사이에 둔 북방정책과 치열한 대외적 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 이후 태조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를 무너트리며 고려왕조의 영역적 기틀을 세웠지만 북방의 국경을 획정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契丹)의 강성과 여진(女眞)의 존재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후백제와의 오랜 전투로 인하여 북방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도 작용하였다. 고려왕조가 북방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918년(태조 원년) 태조 왕건이 즉위하면서 평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⁵⁾ 표방하면서부터였고, 919년(태조 2년)에 개경 정도(定都)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서경(西京)과 더불어

3, 1999 ;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89, 2004 ; 申安湜,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 66, 2008.

2) 『고려사』에서 보면, ‘國境’은 나라의 地境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 후삼국 통일 이전 고려왕조의 군사적인 행동 방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후백제와의 대결을 위한 남방전선이고, 둘째는 북방 개척을 위한 북방전선이었다(李基白, 「高麗太祖 時의 鎮」,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32쪽). 때문에 고려초기의 국경인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이 글에서의 ‘國境’은 주로 북방 민족과의 ‘영토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3) 『고려사』 권5, 세가5, 덕종 2년 8월 무오, “命平章事柳紹 創置北境關城”

4)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고려초기’는 고려왕조의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성종대(981~997)까지로 설정하였다. 특히 993년(성종 12)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은 고려왕조의 북방 영토의식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원년 9월 병신, “論群臣曰 平壤古都荒廢雖久 基址尙存 而荆棘滋茂 蕃人遊獵於其間因 而侵掠邊邑 爲害大矣 宜徙民實之 以固藩屏 爲百世之利 遂爲大都護 遣堂弟式廉 廣評侍郎列評 守之”

양경제(兩京制)가 실시된 때로부터가 아닌가 한다.⁶⁾ 이것은 또한 고려 왕조의 적극적인 북방 영토의식의 표출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 과정에는 거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993년(성종 12) 윤10월, 서희(徐熙)와 거란 장수 소손녕(蕭遜寧)과의 강화회담^{은7)}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의 국경이 획정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고려 국경에 대한 연구 성과는 꾸준히 이루어진 편이었고,⁸⁾ 중국의 역사왜곡에 맞선 대외관계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 경계에 있어서 압록강 유역의 실효적 지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관심이⁹⁾ 여전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 과정을 우선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전개과정과 그 구현으로서의 북방 성곽 축조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와 거란의 국경 분쟁과 ‘강동 6주(江東六州)’의 실체를 통해 고려초기 국경 획정의 의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¹⁰⁾

6)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 2014, 7~11쪽.

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8) 고려전기 영토의식에 주목한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池内宏,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5, 1918 ;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 4, 1953 ;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 5, 1953 ; 金九鎭, 「公嶮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1976 ; 李基東, 「新羅下代の 涇江鎭—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學報』 6, 1976 ; 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 『東洋學』 7, 1977 ; 金光洙,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 7, 1977 ;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 1983 ; 方東仁,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89, 2004 ;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2005 ;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북방사논총』 11, 2006 ;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9) 김순자, 앞의 논문, 2006 ; 李美智, 앞의 논문, 2008.

10) 필자는 최근에 고려왕조의 북방 영토의식에 관한 논문을 집필한 적이 있었는데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이는

2. 영토의식과 성곽 축조

고려초기의 국경 확정 과정은 개국이후부터 꾸준히 형성된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이 크게 좌우하였고, 태조대의 북방지역에 대한 잦은 순행(巡幸)에서도¹¹⁾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고려후기의 이세현은 “우리 태조께서는 왕위에 오른 후에 김부(金傅)가 아직 귀순하지 않았고, 견훤이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주 서도(西都)에 행차하여 친히 북방의 변경에 순수하였다. 그 의도 또한 동명왕(東明王)의 옛 영토를 내 집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靑氈]으로 알아 반드시 취하여 차지하려 하였으니, 어찌 다만 계림(鷄林)을 취하고 압록강만을 칠[操鷄搏鳴] 뿐이었겠는가?”라고¹²⁾ 하였다. 이런 점은 고려왕조의 고구려 역사계승의식을 통한 보다 확대된 북방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실들은 『고려사』 지리지에도 반영되어¹³⁾ 있다.

고려전기의 영토의식을 통한 고려 ‘天下觀’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고려초기의 영토의식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 글은 그 보완적 측면이 있다.

11) 태조대의 북방지역에 대한 巡幸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北界			西京		
3년	是歲 王 巡北界而還	節	4년 10월	壬申 幸西京	史
11년	是歲 巡幸北界	史	5년	幸西京 新置官府貢吏 始築在城	史
15년 7월	辛卯 親征一牟山城 遣正胤武 巡北邊	史	8년 3월	幸西京	史
* 契丹滅渤海(태조 8년 12월) - 節 * 史 - 『고려사』 권1, 세가1·2, 태조1·2 節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9년 12월	癸未 幸西京 親行齋祭 巡歷州鎮	史
			12년 4월	幸西京 歷州鎮	史
			13년 5월	壬辰 幸西京	史
			13년 12월	庚寅 幸西京 創置學校	史
			14년 11월	辛亥 幸西京 親行齋祭 歷州鎮	史
			17년 정월	甲辰 幸西京 歷巡北鎮	史
			18년 9월	甲午 幸西京 歷巡黃·海州	史

12) 『고려사절요』 권1, 태조 26년 5월, “我太祖即位之後 金傅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爲吾家靑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雞搏鳴而已哉”

13)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序, “我海東三面阻海 一隅連陸 輻員之廣 幾於萬里 高麗太祖興於高句麗之地 降羅滅濟 定都開京 三韓之地歸于一統... 其四履西北 自唐以來 以鴨綠爲限 而東北則以先春嶺爲界 蓋西北所至 不及高句麗 而東北過之”

고려초기의 북방 영토의식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연안이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에 포괄된 것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배의 의미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실제적인 지배권으로 들어온 것은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략 및 이로 인한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가-① 우리나라의 군현(郡縣)은 도적(圖籍)에 나타난 것이 대략만 있고 자세하지 못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 비로소 고려도(高麗圖)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산맥을 살펴보면, 백두(白頭)로부터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鐵嶺)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올라 풍악(楓岳)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太白山)·소백산(小白山)·죽령(竹嶺)·계립(鷄立)·삼하령(三河嶺)·추양산(趨陽山)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峰)으로 뻗었는데 지리(地理)와 지축(地軸)이 여기에 이르러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청숙한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살수(薩水)·패강(賈江)·벽란(碧瀾)·임진(臨津)·한강(漢江)·웅진(熊津)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 중에서 가야진(伽倻津)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元氣)가 화하여 뭉치고, 산이 끝나면 물길이 앞을 들렀으니, 그 풍기(風氣)의 구분된 지역과 군현의 경계를 이 그림만 들추면 모두 볼 수 있다.¹⁴⁾

이 내용은 1396년(조선 태조 5)에 이첨(李詹)이 고려초기에 그려진 ‘고려 지도[高麗圖]’를 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지도의 존재유무 혹은 사실유무를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그

14) 『동문선』 권92, 序, 「三國圖後序(李詹)」, “本朝郡縣 載於圖籍者 略而不詳 無以考驗也 統合以後 始有高麗圖 未知出於誰手也 觀其山 自白頭迤邐 至鐵嶺突起而爲楓岳 重複而爲大小白 爲竹嶺 爲雞立 爲三河嶺趨陽山 而中臺巨雲峯 而地理地軸至此 更不過海而南 清淑之氣 於焉蘊蓄 故山極高峻 他山莫能兩大也 其脊以西之水 則曰薩水 曰溟江 曰碧瀾 曰臨津 曰漢江 曰熊津 皆達于西海 脊以東 獨伽耶津南流耳 元氣融結 山川限帶 其風氣之區域 郡縣之疆 場披圖可見已”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초기 영토의 주축이 백두산으로부터 설정된 것은 왕조적 영토의식의 정통성과 그 이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길은 살수·괘강·벽란·임진·한강·웅진인데 모두 서해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길 중에서 가야진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라고 하여, 큰 강 줄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려 서북 지역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압록강이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에 대한 문제는 고려 성립으로부터 대외적 마찰 특히, 거란과의 영토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기준이었다. 따라서 위의 고려 지도는 광종대 청천강 이북 지역에 성곽이 구축되기 이전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비해 압록강을 포함한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가-② 먼저 닭[鷄]을 잡고 뒤에 오리[鴨]를 칠 것이라고 한 것은 왕 시중[태조 왕건]이 나라를 얻은 뒤에 먼저 계림[신라]을 얻고 뒤에 압록강을 되찾는다는 뜻이다.¹⁵⁾

③ 우리나라가 삼한(三韓)을 통일한 이래로 47년인데, 병사들은 여전히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군량은 아직도 소모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서북쪽으로 오랑캐들과 이웃하고 있어서 방어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혈탄(馬歇灘)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의 뜻이었으며, 압록강[鴨江] 가의 석성(石城)을 경계로 삼은 것은 태조(大朝)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간청하건대, 요충지를 선택하셔서 경계를 정하시고,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병사들을 선발하셔서 국경을 지키는 데에 충당하십시오. 또 그 중에서 2~3명의 편장(偏將)을 뽑아서 그들을 통솔하게 하시면, 곧 중앙의 군사들은 다시 수자리를 서는 노고를 면할 것이며, 풀과 군량을 급히 실어 나르는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¹⁶⁾

1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태조 무편년, “先操雞 後搏鴨者 王侍中 御國之後 先得雞林 後收鴨綠之意也”

16) 『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 6월, “我國家統三以來四十七年 士卒未得安枕 糧餉未免糜費者 以西北隣於戎狄而防戍之所多也 願聖上以此爲念 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戍 又選其中二三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芻粟省飛輓之費”

- ④ 서희가 국서(國書)를 받들고 거란의 군영으로 가서 소손녕과 더불어 동등한 예로 대하면서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소손녕이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기면서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新羅)의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범하여 굶아먹고 있다...”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렇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을 정한 것입니다. 토지의 경계를 논하자고 한다면, 상국(上國, 거란)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되는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압록강(鴨綠江) 안팎도 역시 우리의 영역 안쪽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를 도적질하여 기거하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변덕을 부리므로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함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니, 조병이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¹⁷⁾

사료 가-②의 내용은 고려의 영토의식이 확립되기 이전의 사실을 설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⁸⁾ 이에 의하면, 고려의 영토가 신라와 구고구려의 영역까지를 포괄하였고, 북방의 영역적 경계지역으로 압록강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의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출발이자 구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였고, 이후 국경 분쟁에서 고려왕조의 명분이 되었다. 사료 가-③에서는 982년(성종 원년) 최승로에 의해 제시된 ‘시무(時務) 28조’의 일부로서 고려의 북방 경계지역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 근거 지역으로 마혈탄(馬歇灘)과 석성(石城)이 거론된 것은 이 두 지역의 위치 여부가 고려초기의 국경을 이해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17)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熙奉國書 如丹營 與遜寧抗禮 不小屈 遜寧心異之 語熙曰 汝國興新羅地 高句麗之地 我所有也 而汝侵蝕之... 熙曰 非也 我國卽高句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若論地界 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 女眞盜據其間 頑點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不通 女眞之故也...”

18) 이 설화는 ‘王昌瑾의 고사’이며 그 자체가 태조 왕건의 성장 및 차후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당대보다는 후대인들의 인식의 소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 나타나는 역사인식은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혈탄의 위치는 일찍이 압록강으로 비정되었다가 이후 청천강일 것이라는 견해들이 제시되었고,¹⁹⁾ 후자의 견해가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형편이다. 그런데 태조대의 성곽분포가 청천강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혈탄과 청천강을 연관시킨²⁰⁾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가-②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조대의 국경 인식이 청천강으로 고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고려초기의 국경 인식에서도 압록강이 중요한 지역적 근거로 상정되고 있었다.

석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진(威遠鎭)은 현종 20년에 유소를 보내 옛 석성(古石城)을 수리하여 이를 설치하였고, 진(鎭)은 흥화진(興化鎭)의 서북에 있다.”라는²¹⁾ 것과 운중도 역참(雲中道 站驛) 중에 석성[평로진(平虜鎭)]이²²⁾ 확인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평로진은 북계 지역이긴 하지만 동북쪽에 가까운 지역이었고, 위원진은 압록강 유역의 의주(義州)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따라서 석성이 고려와 거란의 영역적 경계였음을 고려하면 위원진이 아니었을까 한다.²³⁾

19) 李基白 등, 앞의 책, 1968, 79쪽. 즉, 馬歇灘을 압록강 종류로 비정한 것은 池內宏(앞의 논문, 1918, 8~9쪽)·金庠基(『高麗時代史』, 서울대출판부, 1985, 65쪽)·朴賢繼(『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258쪽) 등이고, 청천강으로 비정한 것은 尹武炳(앞의 논문, 1953, 48~49쪽)·李丙燾(『韓國史』 中世篇, 震檀學會, 1961, 58쪽)·姜性文(앞의 논문, 1983, 35~37쪽)·서성호(『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 1999, 36쪽) 등이다.

20) 尹武炳, 앞의 논문, 1953, 48~49쪽.

21)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威遠鎭, “顯宗二十年 遣柳韶 修古石城 置之 鎭在興化鎭西北”

22) 『고려사』 권82, 지36, 병2, 站驛, 雲中道, “掌四十三 長壽【西京】 通德·善田·金川【慈州】 長梨·長歡·豐歲【連州】 蘇民·新定·通路【鐵州】 圓林【延州】 永安【青塞】 石城·櫻谷·平寧【平蘆】 寬洞【成州】 密田·咸德【順州】 安德·安洞·德林【博州】 牽牛·淄潭·寬川【寧遠】 臨洞【樹德】 清澗【陽崑】 新豐【撫州】 雲谷·東山·泰來【孟州】 寬化·石牛【渭州】 葦溪·安泰【泰州】 問平·沙川·豐川【延州】 玉兒·雲畔【雲州】 玉關·梓田【昌州】 長林【成州】 興德【殷州】”

23) 압록강가의 石城이 주목받는 이유는 ‘大朝 가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 형성에 시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중국(혹은 거란)·고려 경종(혹은 성종) 등으로 보기도 한다(李基白 등,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3, 79~80쪽). 大朝를 어느

한편 사료 가-③에서 마혈탄 혹은 석성이 거란의 남방 경계선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마혈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마혈탄과 압록강이 전혀 다른 명칭이었는지도 의문이다.²⁴⁾ 이런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고려초기 거란과의 관계에서 여진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최승로의 주장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고려와 거란의 국경 인식에서 언제든 충돌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 등이다. 사료 가-④의 내용이 그러한 실례가 될 것이다. 즉 거란의 1차 침략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의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도 고려가 구고구려의 영역을 계승했음을 강조하였고, 그 중심적인 축을 압록강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 국경 개념을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고려가 고구려 역사계승을 강조하면 할수록, 고려의 영역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나라를 압박할 정도의 강력한 거란은 고려의 국경 관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서 보면, 고려초기에는 서북면 지역에 대한 적

쪽으로 인식하던 간에 石城이 고려 국경의 근거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고려사』 등에서 발견되는 大朝라는 용어는 事大의 대상을 주로 지칭한 것이었고, 石城이라는 용어 역시 고려의 다른 지명 혹은 성곽 명칭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大朝를 거란으로 추정하면 성종 즉위 무렵부터 거란을 大朝라고 할 수 있는 정세였는지가 문제이겠고, 또한 태조대로부터 이루어진 거란에 대한 인식 및 송나라와의 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고려 성종’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敎育』 89, 2004, 77쪽). ‘大朝’를 자신의 나라로 높여 부른 사례에는 성종 12년 윤 10월의 소손녕이 자신의 나라 거란을 ‘大朝’라고 한 것이 있다(『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 “遼寧聲言 大朝 既已奄有高句麗舊地”).

- 24) 압록강은 ‘마자수(馬訖水)’라고도(『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義州) 불려 마혈탄과 비슷한 용어로 파악되고, 청천강은 주로 ‘살수(薩水)’로(『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安北大都護府) 불려 왔기 때문에 압록강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극적인 국경 인식에 비해, 동북면 지역의 국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서는 “서북은 당(唐) 이래로 압록(鴨綠)을 한계로 삼았고, 동북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삼았다. 무릇 서북은 그 이르는 곳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은 그것을 넘어섰다.”라고²⁵⁾ 하여, 서북 국경의 접점이 압록강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동북 국경은 1108년(예종 3) 윤관의 9성 건설²⁶⁾ 이후로 설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북 국경에 대한 문제는 예종대 윤관의 여진정벌 이전까지는 서북 국경에 비해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못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영토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그 역사적 대강을 이해할 수 있다.

가-⑤ 고려는, 남쪽은 요해(遼海)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遼水)와 맞닿았고 북쪽은 옛 거란 땅과 연속되고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 옛적에는 봉경(封境)이 동서는 2천여 리, 남북은 1,500여 리였는데[舊封境 東西二千餘里 南北一千五百餘里], 지금은 이미 신라와 백제를 합병하여 동북쪽은 조금 넓어졌지만 그 서북쪽은 거란과 연속되었다. 옛적에는 대요(大遼)와 경계를 했었는데 [昔以大遼爲界], 뒤에 대요의 침략을 받게 되어 내원성(來遠城)을 쌓아 요새로 삼았다. 그러나 이것은 압록강을 믿고 요새로 한 것이다... 고려에서는 이 강물이 가장 크다... 이로써 전고에는 일찍이 이 강을 믿어 요새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래서 고려가 물러 들어가 압록강의 동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²⁷⁾

이 내용은 1123년(인종 원년)에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공의 『고려도경』 중에서 고려의 강역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려의

2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序, “西北自唐以來以鴨綠爲限而東北則以先春嶺爲界 蓋西北所至不及高句麗而東北過之”

26) 『고려사』 권12, 세가12, 예종1, 예종 3년 3월.

27) 『고려도경』 권3, 성읍, 封境, “高麗南隔遼海西距遼水北接契丹舊地東距大金… 舊封境東西二千餘里南北一千五百餘里今既并新羅百濟東北稍廣其西北與契丹接連昔以大遼爲界後爲所侵迫乃築來遠城以爲阻固然亦恃鴨綠以爲險也… 高麗之中此水最大… 以此知前古未嘗恃此水以爲固此高麗所以退保鴨綠之東歟”

서북 지역에 대한 것은 자세한 반면, 동북 지역에 대한 것은 그렇지가 못하였다.²⁸⁾ 그런데 동서의 길이가 2,000여 리라는 것은 ‘고려장성(高麗長城)’이 1,000여 리였다는²⁹⁾ 것과 차이가 난다. 거리상으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동북 국경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윤관의 9성 지역 혹은 공험진의 선춘령까지를 아우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또한 앞서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서 “그 사방의 경계가 서북은 당나라 이후 압록강을 한계로 하였고, 동북은 선춘령으로 경계를 삼으니, 대체로 서북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은 이에서 지났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영토의식은 1101년(숙종 6) 고려의 지형을 참조하여 만들었다는 화폐 ‘은병(銀瓶),³⁰⁾ 1107년(의종 2)에 발견된 ‘고려지도(高麗地圖),³¹⁾ 공민왕 때의 지도,³²⁾ 그리고 앞서 조선초기 이침이 보았다는 ‘고려도(高麗圖)³³⁾ 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것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고, 다만 고려초기부터 꾸준히 구축한 양계 지역의 성곽 축조를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28) 서금이 고려의 지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세한 고려 지도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려는 遼東에 있어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칠 수 있는 候甸近服 같지 않기 때문에 圖籍의 작성은 더욱 어렵다.”라고(『고려도경』, 서문) 고충을 털어놓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고려사절요』 권4, 덕종 2년 8월, “平章事柳詔 創置北境關防 起自西海濱古國內城 界鴨綠江入海處 東跨威遠興化靜州寧海寧德寧朔雲州安水清塞平虜寧遠定戎孟州朔州等十三城 抵耀德靜邊和州等三城 東傳于海 延袤千餘里 以石爲城 高厚各二十五尺”

30) 『고려사』 권79, 지33, 식화2, 화폐, 숙종 6년 4월, “是年 亦用銀瓶爲貨 其制 以銀一斤爲之 像本國地形 俗名闊口”

31) 『고려사』 권17, 세가17, 의종1, 의종 2년 10월 정묘, “以其書 及柳公植家藏高麗地圖 附宋商彭寅 以獻檜”

32) 『고려사』 권114, 열전27, 諸臣, 羅興儒傳, “撰中原及本國地圖 紱開闢以來帝王興廢疆理離合之迹 曰好古博雅君子覽之 胸臆間一天地也 遂進于王 王見而嘉之”

33) 『동문선』 권92, 序, 「三國圖後序(李詹)」, “本朝郡縣 載於圖籍者 略而不詳 無以考驗也 統合以後 始有高麗圖 未知出於誰手也”

〈표 1〉³⁴⁾ 고려전기 양계 지역의 성곽 축조

역도 시기	흥교도	흥화도	운중도	삭방도
태조대 (918 ~ 943)	龍岡縣 咸從縣 鎮國城 安定鎮 永清鎮 安北府 肅州 平原郡		雲南縣(撫州) 成州 安水鎮 (連州) 興德鎮 朝陽鎮(連州) 馬山 連州城 順州 陽岳鎮 大安州(慈州) 殷州	
정종대 (945 ~ 949)	德昌鎮(博州) 通德鎮 (肅州) 博州		鐵驪(孟州) 德成鎮(渭州)	
광종대 (949 ~ 975)		濕忍(嘉州) 寧朔鎮 泰州 信都 嘉州 安戎鎮	威化鎮(雲州) 撫州 安朔鎮 (延州) 樂安郡(陽州) 雲州	長平鎮 和州 高州 博平鎮
경종대 (975 ~ 981)			清塞鎮	
성종대 (981 ~ 997)		表興鎮 歸化鎮 郭州 龜州 安義鎮 興化鎮 靈州 宣州 (通州)	樹德鎮 猛州	隘守鎮 文州
목종대 (997 ~ 1009)		德州 嘉州 光化縣 郭州 龜州 興化鎮 通州	平虜鎮 威化鎮	永豐鎮 鎮冥縣 金壤縣 龍津鎮 翼嶺縣 登州
현종대 (1009 ~ 1031)		德州 龍州 鐵州 安義鎮 永平鎮 威遠鎮 定戎鎮 麟州 寧德鎮	清塞鎮	長州 金壤縣 雲林鎮 宣州 耀德鎮 霽陰縣 顯德鎮 龍津鎮城 高州
덕종대 (1031 ~ 1034)		朔州 靜州鎮		
덕종 2년 (고려장성)		威遠鎮 興化鎮 靜州 寧海 ◆ 寧德鎮 寧朔鎮 定戎鎮 朔州	雲州 安水鎮 清塞鎮 平虜鎮 寧遠鎮 孟州	耀德鎮 靜遠鎮 和州
정종대 (1034 ~ 1046)			寧遠鎮 平虜鎮	長州 定州 元興鎮 永興鎮
문종대 (1046 ~ 1083)		寧朔鎮 龍州	渭州	德州 元興鎮

34) 이 표는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條와 『고려사』 권83, 지37, 병3, 주현군, 北界·東界條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는 추정하기 어려운 것을 표시한 것이다.

〈표 1〉은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흥교도(興郊道)·흥화도(興化道)·운중도(雲中道)·삭방도(朔方道) 지역 등 역도(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³⁵⁾ 태조대 즉, 고려 성립기에는 청천강을 중심으로 한 흥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성곽들이 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화도 지역의 성곽이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운중도와 청천강 이남의 흥교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에워싸는 형세로 성곽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광종대의 흥화도 지역이 개척되면서부터 흥화도 — 운중도 — 삭방도 지역으로 이어지는 성곽 구축이 진전되었고, 성종대 이후 거란과의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양계 지역의 성곽들이 좀 더 공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전기의 성곽 구축이 덕종 2년 ‘고려장성’ 축조의³⁶⁾ 결실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양계의 성곽체제는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을 통한 양계제의 안정과³⁷⁾ 덕종 2년 ‘고려장성’의 축조로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장성’의 축조는 대외적으로 북방 영토의식의 구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북방 지역이 선의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는³⁸⁾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장성’의 구축은 대외적 경계선을 의미하기 이전에 고려와 이민족(異民族)을 구분하는 천하관(天下觀)의 상징성을³⁹⁾ 의미하고 있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는 곧 1107년(예종 2) 여진을 정벌한 지역에 9성을 구축하여⁴⁰⁾ 동북면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토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계의 성곽구축은 대내외적으로 고려의 국방력과 왕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었을 뿐만 아

35) 북계·동계에 구축된 성곽들을 흥교도·흥화도·운중도·삭방도의 驛道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전적으로 양계 성곽체제의 지리적 위치를 쉽게 설명해 보려는 필자의 편리성에 따른 것이다.

36) 『고려사』 권5, 덕종 2년 8월, “命平章事柳韶 創置北境關城”

37) 邊太燮,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38) 李在範, 앞의 논문, 1999, 99~100쪽.

39) 신안식, 앞의 논문, 2017, 95~100쪽.

40)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東界, “睿宗二年 以平章事尹瓘爲元帥 知樞密院事吳延寵副之 率兵擊逐女眞 置九城 立碑于公嶮鎮之先春嶺 以爲界”

나라, 고려전기 거란(요) — 여진(금) 등 북방세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자존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고려 성립으로부터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중심에 항상 압록강의 관념이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 영토의식은 관념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곽 축조를 통해 구체적인 군사적 실천 방안과 함께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국경 분쟁과 ‘강동 6주’

고려초기의 국경은 앞서 최승로의 시무책에서 언급된 마혈탄과 석성 지역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종은 즉위 이후 북방 지역의 방어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983년(성종 2)에는 청천강 이남지역의 순주(順州) · 은주(殷州) · 숙주(肅州) · 자주(慈州) 등에 방어사(防禦使)를 설치했는데,⁴¹⁾ 방어사는 931년(태조 14)에 안북부(安北府)를 설치한 이후 성종 2년에 영주 안북대도호부(寧州安北大都護府)로의 변동과 관계되었을 것이다. 이들 지역은 흥교도와 운중도 지역에 위치하였고, 서북부 지역에서 서경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였다. 또한 984년(성종 3)에는 압록강 유역에 관성(關城)을 설치하려다가 여진의 반발로 실패한 적도 있었고,⁴²⁾ 991년(성종 10)에는 압록강 밖의 여진을 축출하기도⁴³⁾ 하였다. 이런 가운데 성종 12년 제1차

41)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安北大都護府 寧州. 방어사는 군사적 행정단위가 되며(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高麗兵制史研究』, 1981, 194쪽), 970년(광종 21)에 청천강 이북지역인 泰州에도 설치된 적이 있었다.

42)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3년, “命刑官御事李謙宜 城鴨綠江岸 以爲關城 女眞以兵遏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

4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여요(麗遼) 전쟁은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의 전환점이 되었다.

가. 1차 여요전쟁과 국경 분쟁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고려와 거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차 여요전쟁에 대한 고려와 거란의 입장⁴⁴⁾

고려		거란	
대응 전략	㉠ 항복론 : 군대를 인솔하여 투항. ㉡ 할지론 : ㉠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거란에게 주고, 황주(黃州)~절령(岳嶺)까지를 국경으로 삼자는 주장. ㉢ 성종 수용. ㉢ 항전론 : ㉠ 서희 - 거란의 침략 의도는 광종 때 쌓은 가주(嘉州)와 송성(松城)의 탈취 목적. 적과 대적한 이후에 전략 논의. ㉣ 이지백 - 거란의 침략 명분을 확인하여, 신명에게 고한 연후에 항전이나 화어나 하는 문제는 오직 주상이 결정할 문제. ㉤ 성종 수용.	침략 명분	① 거란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영유. 고려가 자신의 국경 침탈(侵奪疆界). ② 고려가 거란에 귀순치 않았음. ③ 고려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천벌을 주러 온 것임.
강화 전략	㉠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 - ㉠ 평양에 도움. ㉢ 거란의 동경(東京)과 압록강 안팎도 고려 경내. ㉡ 거란에 조빙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 여진을 쫓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를 통하여 조빙할 것임. ㉢ 고려의 뜻을 거란 임금에 접수하기 바람.	강화 전략	④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하였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에 소속되었는데, 고려가 침범했음. ⑤ 고려가 송나라를 섬기고 있음. ⑥ 땅을 떼어 바치고 국고를 회복한다면 무사.
성과	㉡ 성종은 방양유를 예폐사(禮幣使)로 삼아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 ㉢ ㉠ 서희는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함. ㉣ 이제 압록강 이남을 회복했을 뿐, 금후 압록강 너머까지 수복한 이후 조빙할 것을 주장. ㉤ 압강도 구당사(鴨江渡句當使) 파견	성과	⑦ 거란 임금으로부터 정전하라는 회답. ⑧ ㉠ 사신 왕래를 위해 요충지에 성지(城池) 구축. ㉢ 거란은 압록강 서리(西里)에 5개의 성을 구축. ㉣ 고려는 안북부(安北府)에서 압록강 동쪽까지 280리 사이에 축성. 역부(役夫)를 보내어 같은 시기에 착수함.

44) 이 표는 『고려사』 권94, 열전7, 徐熙傳 ;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2년 윤10월·13년 2월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거란이 1차 침입을 감행했을 때 우선 고려의 ‘국경[강계(疆界)] 침탈’을 명분으로 내세웠다(〈표 2〉-①). 이때의 국경은 거란이 설정한 고려와의 접경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란이 설정한 국경이 과연 어디였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가 거란이 고려를 신라의 후예로 여긴 것인데, 이럴 경우 고려의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가 거란의 침략 원인에 대한 서희의 인식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광종이 점령하여 쌓은 거주(嘉州)와 송성(松城)을 빼앗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표 2〉-㉔-㉕).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청천강이남 지역을 염두에 둔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나-① 이에 앞서 거란이 여진을 칠 때 우리나라 영토를 거쳐 갔으므로... 거란 군대가 곧 자기네 국경으로 쳐들어오니 구원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국은 그것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즉시 구원하지 않았다. 그 후 과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여진족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 당시에 죽기를 모면한 여진족이 본국의 회창(懷昌)·위화(威化)·광화(光化) 지경까지 도망하여 왔는데 거란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잡아키면서 우리 수비병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진족이 늘 자기네 변방에 와서 침략하였기 때문에 지금 벌써 복수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거란은 요해(遼海)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 그와 상통할 길이 없을뿐더러...⁴⁵⁾

나-② 압록강 바깥에 거주하는 여진족을 백두산 너머로 쫓아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⁴⁶⁾

사료 나-①에서 “거란이 여진을 칠 때 우리나라 영토를 거쳐 갔으므로[契丹伐女眞 路由我境]” “본국의 회창·위화·광화 지경[本國懷昌·

45)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4년 5월, “先是 契丹伐女眞 路由我境... 言契丹兵將至其境 本國猶疑虛偽 未卽救援 契丹果至 殺掠甚衆 餘族遁逃 入于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兵追捕 呼我戍卒言 女眞每寇盜我邊鄙 今已復讎 整兵而回... 況契丹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無路可從...”

46)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0년 10월,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威化·光化之境” “거란은 요해(遼海)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契丹 介居遼海之外 復有二河之阻]” 등은 985년(성종 4)을 전후해서 고려에서 설정한 거란과의 국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회창[미상]·위화[鎭, 운주(雲州)]·광화[鎭, 태주(泰州)] 등은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에 위치하였고, 이들 지역으로 도망친 여진족을 쫓아 거란군이 고려의 경계를 경유했다는 것은 곧 압록강을 넘어 왔다는 뜻일뿐더러 우리 군사에게 양해를 구한 것도 압록강 이남이 고려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란이 요해(遼海) 밖에 있고 험한 두 하천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은 압록강 넘어 요해까지 고려의 영토로 설정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 지역은 아마 여진족이 살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한다(〈표 2〉-㉞). 사료 나-②에서는 고려의 군사가 압록강 밖으로 진출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여진족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 살게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때 거란에서의 항의나 고려에서의 양해를 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던 여진을 두 나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 또한 압록강 밖으로까지 넓혀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고려 조정의 전략으로 ‘항복론(降服論)과 할지론(割地論)’(〈표 2〉-㉟·㊱)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를 수용하려던 성종의 소극적인 태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성종 12년 5월에 거란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여진의 정보를 믿지 않았고,⁴⁷⁾ 그 해 8월 여진에 의해 거란군이 쳐들어왔다는 정보를 받고서야 전쟁 준비에 착수하는⁴⁸⁾ 등 대륙 정세에 대한 첩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고려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의 소극적인

47)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5월, “西北界女眞報 契丹謀舉兵來侵 朝議謂其給我 不以爲備”

48)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8월, “是月 女眞復報契丹兵至 始知事急 分遣諸道兵馬齊正使”

태도는 앞서 <표 1>에서 성종 때까지의 양계 성곽 구축 및 사료 나-②와 같이 적극적인 북방정책 등을 통해서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희는 거란 침략의 원인을 거주(嘉州)와 송성(松城)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았고 적극적인 항전을 요구하였다(<표 2>-④-⑦). 이렇게 고려 조정의 상황 파악에 혼란을 준 것은 무엇보다 거란의 침략 형태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다는 첩보가 성종 12년 5월에 있었고, 8월에서야 고려 국경을 넘었다고 하였으며, 윤10월이 되어서야 봉산군(蓬山郡, 龜州)을 공격하는⁴⁹⁾ 등 상당히 느슨한 형태의 진군을 보여주고 있었다. 80만 대군의 위용을 앞세우면서도 적극적인 전투보다는 항복만을 요구하는 거란의 태도에는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고려 또한 3군을 동원했지만⁵⁰⁾ 거란과의 적극적인 전투를 한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거란의 침략 명분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고려와 국교를 맺으려는 의도가 분명했고, 고려는 북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란의 군사적 공세를 기회로 여진을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과정에서 양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편 <표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종 12년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서희가 돌아오자마자 성종은 방양유를 예폐사로 삼아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다(<표 2>-④). 이에 비해 서희는 “제가 소손녕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강 이쪽 땅을

49)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윤10월 정해,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蕭遜寧攻破蓬山郡 不得進乃還 遣徐熙講和 遜寧罷兵”

50)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2년 10월, “以侍中朴良柔爲上軍使 內史侍郎徐熙爲中軍使 門下侍郎崔亮爲下軍使 軍于北界 以禦契丹”

회복했을 뿐이므로 금후 강 저편의 땅까지 회수될 때를 기다려서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표 2〉-㉞) 했지만, 성종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994년(성종 13) 소손녕의 편지에서⁵¹⁾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를 구분하여 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고려에서 ‘압강도구당사(鴨江渡句當使)’를 파견하였고,⁵²⁾ 성종 13·14·15년에 각각 성곽 축조의⁵³⁾ 결실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결국 성종은 압록강 이남을 수용하는 북방 영토의식을 가졌던 것에 비해, 서희는 압록강을 초월하는 확대된 북방 영토의식을 보여주었다. 물론 양자의 북방 영토의식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려왕조의 전통적인 북방 영토의식을 관철시키려는 서희의 적극적인 국경론은 높이 살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강동 6주’

성종 12년 거란과의 강화과정에서 고려가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정체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경 구축의 안정적인 지역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를 일반적으로 ‘강동

51)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蕭孫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早通 境土相接 雖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 須存悠久 若不設於預備 慮中阻於使人 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遠近 并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所貴 交通車馬 長開貢獻之途 永奉朝廷 自協安康之計”

52)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以李承乾爲鴨江渡句當使 尋遣河拱辰代之”

5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命平章事徐熙 率兵攻逐女眞 城長興·歸化二鎮 及郭·龜二州” ; 『고려사』 권82, 지36, 병2, 城堡, 성종 14년, “命徐熙 帥兵深入女眞 城安義·興化二鎮” ;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5년, “是歲 徐熙城宣·孟二州”

6주(江東六州)의 획득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하지만 ‘강동 6주’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종 때의 일이다. 즉 1010년(현종 원년) 거란의 2차 침입 이후 현종 3년 6월에 형부시랑 전공지(田拱之)를 거란에 보내 현종의 친조(親朝)가 불가능함을 알렸을 때, 거란에서 ‘흥화진(興化鎭)·통주(通州)·용주(龍州)·철주(鐵州)·곽주(郭州)·구주(龜州)’ 등 6성을 취하겠다고⁵⁴⁾ 통고한 사실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6성을 사이에 두고 거란은 반환을 요구하는 사신을 파견하거나,⁵⁵⁾ 통주⁵⁶⁾·흥화진⁵⁷⁾·용주⁵⁸⁾ 등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서희가 성종의 명령을 받고 쌓은 성은 성종 13년에 ‘장흥진(長興鎭)·귀화진(歸化鎭)·곽주·구주’,⁵⁹⁾ 성종 14년에 ‘안의진(安義鎭)·흥화진’,⁶⁰⁾ 성종 15년에 ‘선주(宣州)·맹주(孟州)’⁶¹⁾ 등 8개의 성이었다. 또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강동 6주’가 실제 논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⁶²⁾ 물론 거란이 요구한 ‘강동 6성’은 북계 지역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강동 지역의 포괄성을 지닌 상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제1차 여요전쟁에서 고려가 획득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록강을 기준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의 영역적 구분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이

54)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3년 6월 갑자, “遣刑部侍郎田拱之 如契丹 夏季問候 且告王病 不能親朝 丹主怒 詔取興化·通州·龍州·鐵州·郭州·龜州等六城”

55)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4년 3월 무신·7월 무신, 5년 9월 병신, 6년 4월 경신·9월 갑인.

56)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5년 10월 기미, 6년 1월 갑진·9월 기미.

57)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1월 계묘.

58)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 현종 6년 3월 기해.

59)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60) 『고려사』 권82, 지36, 병2, 성보, 성종 14년.

6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5년.

62) 김순자, 앞의 논문, 2006, 254쪽. 강화회담의 성과를 ‘강동 6주’의 확보로 설정하는 것은 그 결과를 스스로 축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란의 ‘강동 6성’ 반환 요구가 ‘강동 6주’에 대한 관심으로 표명되었는데, 이는 예종대 윤관의 9城 개척 및 반환 문제와 더불어 명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6주를 『요사』에서는 ‘여진 6개 부락의 땅’이라고(『요사』 권88, 열전18, 耶律資誨, “... 初 高麗內屬 取女直六部地以賜...”) 하여 여진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 그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나-③ 소손녕이 글을 보내 이르기를, “요즈음 받든 우리 황제의 명령에 말씀하시길, ‘다만 고려와는 좋은 우호관계가 일찍부터 통하였고 국경이 서로 맞닿았다.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에 진실로 합당한 규범과 의례가 있지만, 그 처음과 끝을 살펴본다면 모름지기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남겨야 한다. 만약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신 길이 도중에 막힐까 걱정이다. 따라서 고려와 서로 상의하여 길의 요충지에 성곽과 해자를 쌓아 만들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압록강 서쪽 [鴨江西里]에 5개의 성을 쌓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여 3월 초에 축성할 곳으로 가서 성 쌓는 공사를 착수할까 합니다. 삼가 청컨대 대왕(大王)께서도 미리 지시하여 안북부(安北府)로부터 압록강 동쪽(鴨江東)에 이르기까지 총 280리 사이에 적당한 지역을 답사하고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울러 성을 쌓을 일꾼들을 보내 우리와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며, 쌓을 성의 수가 도합 몇 개인지 빨리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은 거마(車馬)가 오가며 통함으로써 길이 조공(朝貢)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과 영원히 우리 조정을 받들어 스스로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⁶³⁾

④ 고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본국(本國)의 지리도(地理圖)를 바쳤다.⁶⁴⁾

사료 나-③에서는 성종 12년 윤10월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거란이 제기한 안북부로부터 압록강 동쪽 280리까지 축성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였을까? 앞서 살펴 보았던 서희의 성곽 축조와 <표 1>에서 보듯이, 성종대 이후 흥화도 지역의 성곽 축조 역시 여기에 준해서 이루어졌고, 『신증동국여지승람』

63)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13년 2월, “蕭孫寧致書曰 近奉宣命 但以彼國信好早通 境土相接 雖以小事大 固有規儀 而原始要終 須存悠久 若不設於預備 慮中阻於使人 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預先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并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所貴 交通車馬 長開貢觀之途 永奉朝廷 自協安康之計”

64) 『요사』 권14, 본기14, 성종5, 성종[통화] 20년 7월 신축, “高麗遣使來進本國地理圖”

권53, 평안도조를 참고하면 안북부로부터 ‘강동 6주’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거란이 설치하려던 압록강 서쪽 5개 성이 어디였을지도 관심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거란이 압록강 밖에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양국의 국경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도 합의된 일부로 여겨지며, 성종의 예폐사 파견에서도 양국의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희의 의도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었던 여진족을 축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㉓·㉔). 물론 여진족 축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성종 10년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 살게 했다는(나-②) 사례가 있었다. 여진족을 축출한다는 것은 고려의 북방 안정에 중요한 관건이었지만, 거란의 요구를 수용한 성종의 선택으로 압록강 이남에만 그치고 말았다. 이를 토대로 고려에서는 ‘고려 지도[本國地理圖]’를 그렸던 것으로 확인된다(나-④). 이 고려 지도는 1002년(목종 5) 고려에서 거란에 바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란 조정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 압록강 유역을 확보한 것은 현종대의 2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였고, 덕종대 ‘고려장성’을 구축하여 고려의 북방 지역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따라서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강동 6주’로 상징화하는 것보다는 여진족 축출에 이어 압록강 유역으로의 실질적 진출을 통한 국경 확정의 의의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맺 음 말

지금까지 고려초기의 국경 획정과정을 고려초기의 북방 영토의식 및 고려와 거란의 국경 분쟁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고려의 국경 획정에는 개국이후부터 꾸준히 형성된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이 크게 좌우하였고, 그 중심적인 관심에 압록강이 있었다. 압록강 연안이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에 포괄된 것은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지배의 의미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성곽 축조를 통한 구체적인 장악 방안과 함께 양계(兩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고려초기의 북방 영토의식은 최승로의 시무책에서 언급된 마혈탄과 압록강가의 석성으로 관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혈탄이 어디였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압록강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고려 성립으로부터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중심에 압록강의 관념이 상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압록강 유역이 고려의 실제적인 지배권으로 들어온 것은 성종 12년 거란의 1차 침입 및 이로 인한 서희와 거란장수 소손녕과의 강화회담 결과로부터 이루어졌다. 서희와 소손녕의 강화회담에서는 양국의 국경을 획정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강화회담 이후 성종은 예폐사를 거란에 보내 친선의 뜻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성종 13년 소손녕의 편지에서 압록강을 중심으로 강동(江東)과 강서(江西)를 구분하여 양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타협안이 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종 12년 거란과의 강화과정에서 고려가 획득한 것은 무엇보다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왕조적 북방 영토의식의 정체성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경 획정의 안정적인 지역기반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 점 또한 현종대의 2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할 수 있었던 토대였고, 덕종대 ‘고려장성’을 구축하여 고려의 북방 지역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편 성종 12년 강화회담의 의의를 일반적으로 ‘강동 6주’의 획득이라고 명명되어 왔다. 하지만 ‘강동 6주’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현종 때의 일이다. 그리고 강화회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려 정부의 의도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있었던 여진족을 축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진족 축출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고려의 북방 안정에 중요한 관건이었다. 따라서 고려와 거란의 강화회담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강동 6주’로 상징화하는 것보다는 여진족 축출에 이어 압록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국경 확장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제1차 여요전쟁을 계기로 해서 드러난 고려왕조 내부의 북방 영토의식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 추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고려왕조의 전통적인 북방 영토의식을 관철시키려 했던 관료 서회의 적극적인 국경론은 높이 살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7. 9. 28, 심사수정일: 2017. 11. 19, 게재확정일: 2017. 11. 21.]

주제어: 북방 영토의식, 국경분쟁, 압록강, 거란, 여진, 강동, 강서, 강동 6주, 고려지도, 고려장성

〈참 고 문 헌〉

- 姜性文,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1983)
- 金光洙,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東洋學』 7(1977)
- 金九鎭, “公嶮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1976)
-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5
- 김명철, “고려시기 성의 위치와 년대에 대한 고증”, 『조선고고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북방사논총』 11(2006)
- 朴賢緒,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4
- 方東仁,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 邊太燮,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1
- 서성호, “고려 태조대 대(對)거란 정책의 추이와 성격”, 『역사와 현실』 34(1999)
- 申安湜,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歷史教育』 89(2004),
<http://uci.or.kr/G704-000198.2004..89.004>
- 신안식, “高麗前期의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2005),
<http://uci.or.kr/G704-001262.2005..18.005>
- 申安湜,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 66(2008),
<http://uci.or.kr/G704-001528.2008..66.005>
- 신안식, “고려시대의 三京과 國都”, 『한국중세사연구』 39(2014),
<http://uci.or.kr/G704-001262.2014..39.001>

-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2017)
-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上)”, 『歷史學報』 4(1953)
-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歷史學報』 5(1953)
- 李基東, “新羅下代の 涇江鎮—高麗王朝의 成立과 關聯하여”, 『韓國學報』 6(1976)
- 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鎮에 대하여”, 『歷史學報』 10(1958)
- 李基白, “高麗 太祖 時의 鎮”, 『高麗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68
- 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鎮城”, 『東洋學』 7(1977)
- 李基白 등, 『崔承老上書文研究』, 서울: 一潮閣, 1993
- 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高麗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1
-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2008),
<http://uci.or.kr/G704-001262.2008..24.008>
- 李丙燾, 『韓國史』中世篇, 서울: 震檀學會, 1961
- 李在範,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3(1999)
- 池內宏, “高麗成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5(1918)

<Abstract>

The Awareness of Territory and Border Dispute of the Early Stage of Goryeo Dynasty

Shin, An-Sik

The Demarcation of Goryeo territory was largely determined with dynastical awareness of northern territory which had been steadily formed since foundation of nation, and the central interest was based on the Yalu river. The point that Yalu coast was included in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had a regular difference in respect of ideological and actual significance of domination. The way of realizing this was actualized through the institutional strategy of Yanggae(兩界) along with the concrete domination through construction of fortress.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during the early Goryeo can be said to have been conceptualized with Maheoltan(馬歇灘) and Seokseong(石城) of Yalu coast, mentioned in ChoiSeungro's Simuchaek. It can be controversial whether Maheoltan was located, however concrete mention of Yalu river implies that the concept of Yalu river was regularly operated in the center of dynastical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since foundation of Goryeo. The point when Yalu coast was entered in the actual domination of Goryeo was due to the 1st invasion of Khitan during Seongjong's reign 12th year and the result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between SeoHee and SoSonnyeong, the admiral of Khitan. It is determined that Ganghwa conference between Seo Hee and So Sonnyeong did not made a clear conclusion of demarcating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a compromise to acknowledge domination of the two countries was made by dividing into Gangdong(江東) and Gangseo(江西) based on Yalu river.

The point that Goryeo acquired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Khitan during the 12th year of Seongjong's reign was above all regularization of advance into Yalu riverside. This not only realized identity of dynastical

northern territorial awareness, but also secured stable regional base of border demarcation externally. This also was the basis to overcome two invasions of Khitan during Hyunjong's reign, which contributed to firmness of norther region of Goryeo by constructing 'Goryeojangseong' during the reign of Deokjong.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ce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during the 12th year of Seongjong's reign was generally named as acquisition of 'Gangdong 6-ju'. However, the point when 'Gangdong 6-ju' became the focus of attention was during Hyunjong. Also, the intention of Goryeo's royal court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implied the securement of justification of driving out the tribe of Yeojin between Goryeo and Khitan. Of course, it is not clear the scope of drive out of the tribe of Yeojin, realization of this was an important issue of northern stabilization of Goryeo. Accordingly, the researcher consider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border demarcation through advance into Yalu riverside next to drive out of Yeojin, rather than symbolizing the output of reconciliation conference between Goryeo and Khitan as 'Gangdong 6-ju'.

Keywords : northern territory awareness, border dispute, Yalu River, Khitan, Yeojin, Gangdong, Gangseo, Gangdong 6-ju, Map of Goryeo, Goryeojangseong